

教會와 社會醫學



가톨릭 醫科大學

教授 曹 圭 常

머 리 말

歴史的으로 볼때 가난과 疾病과 其他 모든 不幸을 없애기 위한 社會福祉의 事業精神은 宗教의 精神에 그 바탕을 두고 發展하여 왔다.

社會의 發展에 따라 現代國家에 있어서도 모든 國民의 安寧과 福祉는 그들이 속해 있는 國家社會의 責任下에서 保障되도록 추진되어 나가 고 있다.

現代教會에서 믿어 온 醫療事業도 落伍된 不遇한 사람들에 대한 慈善의 立場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의 肢體라는 人間共同體에 立脚한 共同善의 協力を 強力히 要求하고 있다

社會福祉는 國民健康에 큰 基礎를 두고 있다 모든 國民이 健康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社會機構와 急變하는 社會의 產業經濟體制 속에 있어 教會가 하여온 醫療事業도 여기 再檢討하여야 할 必要性이 절감된다.

II. 國家와 社會

1. 社會開發의 必要性

國家는 社會福祉에 對한 國民의 올바른 價値觀을 定立시켜야 한다. 이것은 福祉社會를 이루 하는데 있어 基礎가 되는 것이다.

人口의 增加와 都市化에 따라 社會福祉를 해 치는 많은 精神的 肉體의 要因들이 增加하고 있 다. 이러한 社會的 障害要因을 除去하는 根本的

對策이 講究되어야 한다.

產業經濟 唯主政策에 있어 社會福祉를 위한 政策은 커다란 支障을 받고 있다. 疾病은 많으며 醫療의 施設은 不足하다. 또한 醫療制度 역시 이를 活用함에 있어 많은 缺陷을 가지고 있다. 現政策에 대한 과감한 是正이 要望된다.

個人所得의 隔差와 消費生活의 發動은 最低生活를 위협하고 있다. 모든 國民의 社會保障이 이룩될 수 있는 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2. 醫療에 對한 國家社會의 責任

先代的인 自立經濟와 自家保障의 社會經濟體制에서 부터 現代社會는 모든 機構가 分化되며 相互依存하는 經濟體系로 變化되었다.

疾病의 成因을 科學的으로 볼 때 疾病은 個人의 過誤로 오는것이 아니라 社會環境—物理化學的 環境으로 부터 社會文化 政治 經濟의 모든 分野를 포함한 一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對策도 社會 모든 分野의 힘에 의하여서만이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醫療技術의 高度의 發展과 學問의 分化는 高價한 醫療費를 要求하고 있다. 豫測不可하며 分布가 不均等한 疾病의 特殊性은 어느 個人의 힘으로 不幸을 막을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國家社會가 責任지는 社會保障의 制度가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Ⅲ. 教會와 社會

1. 人間共同體

現代世界에 있어 人間關係는 다양화하고 있다 이것은 急進的인 經濟發展과 產業活動으로서 傳統的社會의 機構를 變化시키고 있다. 이 發展에 있어서는 技術的進歩가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人間의 兄弟的 對話는 이러한 進歩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人格과 人格의 共同體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人間의 精神的 倫理的 本性에 새겨진 社會生活의 法則을 알아야 한다.

教會는 모든 사람들이 한 家族을 이루고 서로 兄弟같은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웃에 대한 사람이 첫째 啓明이요 가장 큰 啓明이다.

聖經은 하나님께 對한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분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의 말씀은 날로 더욱 서로의 의존성이 높아가는 人間社會에 있어 가장 重要的 것이다.

2. 教會와 社會와의 相互關係

人間의 共同體와 活動은 教會와 社會相互關係의 基礎가 된다.

教會는 社會와 더불어 存在하며 살며 活動한다. 教會 역시 社會人으로서 構成되어 있다. 教會는 하나님의 兄弟들로서 볼 수 있는 團體요 靈的共同體로서 人類와 함께 걸으며 世界와 運命을 같이하고 있다.

教會는 하나님의 家族으로서 繁榮되어야 할 人類社會의 누룩이다.

人類家族의 一致는 그리스도 안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子弟들의 家族의 一致로서 完成된다. 그리스도께서 教會에 맡기신 固有의 使命은 政治와 經濟에 關한 것이 아니었으나 教會에 定해 주신 家族의 使命은 人間인 人間 共同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벗과 힘이 되는 것이다.

때와 場所는 環境에 따라 必要하면 慈善事業

을 教會自體가 일으킬 수 있고 또 반드시 일으켜야 한다.

그뿐 아니라 教會는 오늘의 強力한 社會運動에 있어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社會化의 進展을 認定한다.

教會는 社會의 眞實한 外的一致가 精神과 마음의 一致에 基因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教會가 現代社會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힘은 信仰과 사랑에서 發見되는 것으로서 순간적 外的 支配權을 行使하는 것이 않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教會는 그 子女들과 나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國家와 民族사이의 온갖 不私와 不幸을 克服하고 正當한 人間關係를 強化하도록 忠告한다.

3. 社會發展을 위한 教會의 態度

社會生活에 있어 相互依存度가 날로 緊密해지고 世界的으로 擴大됨에 있어 人類社會의 共同善은 人類社會全體에 있어 權利와 義務를 內包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集團은 다른 集團間에 있어서의 必要와 要求가 고려되어야 하며 人類全體의 共同善까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考慮는 존엄성에 對한 自覺에서 出發한다. 人間으로서 가져야 할 必要한 모든 것은 人間에게 주어져야 한다.

勿論 人間 個人的 能力은 다르나 人間의 基本權인 健康을 위시한 衣食住와 教育 勞動 報道 身分등 모든 生活에 있어 自由와 平等을 누릴 수 있는 權利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社會發展은 人間의 福祉를 目標로 삼어야 한다. 社會는 날로 變化하며 發展하여 가고 있다. 社會의 질서와 發展은 人間的인 完成을 土臺로 하여 變革되어 나가야 한다.

모든 人間에 대한 존경은 우리의 이웃을 “또 하나의 자신” 이라고 생각하여야 하며 모든 불우한 사람들이 人間답게 生活을 營爲할 수 있도록 必要한 手段을 강구하여야 한다. 社會에 있어서의 人間의 존엄성을 害치는 모든 행위는 創造主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는 人間의 존엄성과 基本權을 保障하도록 協力하여야 한다.

各者 自身の 能力과 他人의 必要에 따라 共同

善에 기여하고 私的 公的 生活條件을 改善하여 나가야 한다.

役割을 하여야 한다.

現代社會는 人間에 있어 肉體的 精神的 元조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많다.

IV. 敎會와 醫療事業

人間의 基本權이며 人間의 生活을 豊滿케 하여 주는 健康에 대한 宗教的 개념은 醫療의 崇高한 使命이다.

敎會는 醫療에 있어 司牧的 活動을 할 수 있는 方法을 研究하여야 한다.

敎會에서의 社會事業은 敎會와 社會와의 교량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精神을 實踐함에 있어 重要하다.

소극적인 구호나 一般的 慈善事業에 그치지 말고 健康을 害치며 疾病을 招來하는 原因과 不幸의 要素를 除去하는데 觀心을 가져야 한다.

敎會에서의 醫療事業은 家族과 社會 倫理와 敎育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한 分野에 있어 指導的

또한 傳統의으로 敎會를 中心으로 이루어진 醫療의 精神을 훌륭하게 實踐함에 있어서는 高度로 發展하여가는 醫療의 技術과 社會변천에 있어 뒤져서는 않된다

◇ 1972년도 ◇

추계 세미나

1972년도 본 협회 추계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갖기로 하였습니다

— 다 음 —

일시.....1972년 11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대구 파티마 병원
(대구시 동구 신암동 302-1, 전화 ④1096~8)

주제.....교회병원에 있어서의 외원의 역할

<주요연제>

교회병원에 있어서의 외원의 필요성.....조규상 교수(가톨릭의대)

교회병원에 있어서의 외원의 활용.....프란치스코 카린(가톨릭구제회 회장서리)

토의: 외원에 대한 교회 병원으로서의 의견

1. 과거 외원의 효과
2. 현재 병원 운영상의 문제점(시설·요원·예산)
3. 장래 외원에 대한 방향과 희망

1972년 11월 . 월

한국가톨릭병원협회 회장

유 수 철